

창업 3년후 생존율 가장 높은 업종은 제과점

수원·첨단지구 등 신형 소비시장으로 자리매김한 광주 광산구에서 가장 생존율이 높은 자영업종은 제과점으로 나타났다. 창업 3년 후에도 제과점 10곳 중 7곳은 간판을 유지했다. 반면 분식집 10곳 중 7곳은 문을 닫아 수명이 가장 짧았다.

2일 광주구청이 내놓은 '자영업자 업종지도 외식업체'편에 따르면 2013년 사업체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광산구에 있는 한식음식점과 카페, 치킨집 등 8개 업종의 업종·행정동 별 밀집도 등을 분석한 결과, 광산구에서 창업 3년 뒤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제과점(68.2%)이었다. 이어 패스트푸드점(48.8%), 한식음식점(39.0%) 순으로 생존율이 나타났다. 분식집(27.6%)과 호프집(30.9%), 치킨집(33.3%)은 창업 3년 만에 3분의 2가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업 1년 시점에서는 8개 업종 모두 생존율이 비슷했다. 제과점과 패스트푸드, 카페, 분식집은 70%대 중반의 생존율을 보였고, 가장 낮은 치킨집도 63.3%가 살아남았다. 그러나 개업 1년에서 3년 사이

광산구 '외식업체 업종지도'

패스트푸드점·한식점

분식집·호프집·치킨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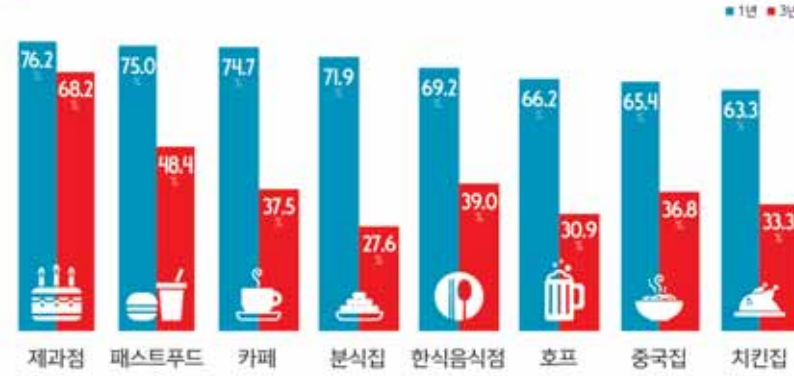
3분의 2가 문닫아

카페는 74.7→37.5%, 치킨집은 63.3→33.3%, 호프·간이주점은 66.2→30.9%로 생존율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자영업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업종은 카페였다. 2008년부터 연평균 28%의 업체 증가율을 기록했다. 치킨집과 패스트푸드점은 2011년 이후 업체 증가율이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광산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수완동과 첨단 2동에 대부분의 외식업체가 몰려 있어 인구 수와 외식업체 수 간의 상관관계도 보였다. 신정동에는 카페·분식집이, 신가동에는 치킨집·중국집이, 운남동에는 제과점이 많아 신도심 지역 외식업 밀집도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식 업종별 생존율



송정2동은 6855명의 적은 인구 수에 비해 124개 한식음식점이 있어 딱딱비 골목이 지역 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한 것이 확인됐다.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자영업자 업종지도를 제작한 곳은 광산구가 전국 최하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와 추세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신중하게 창업이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체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지도를 만들었다"며 "이 지도가 주민들의 성공과 행

복을 위한 좋은 참고자료로 널리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업종지도도 창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노래방·PC방·세탁소 등 '서비스업'과 편의점·약국·웃가게 등 '도소매업' 편 지도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업종지도는 광산구 공공데이터 플랫폼(imap.gwangsan.go.kr)에서 누구나 볼 수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78.64 (-23.73)
- ▼ 금리 (국고채 3년) 1.73% (-0.02)
- ▼ 코스닥 704.77 (-10.96)
- ▲ 환율 (USD) 1112.40원 (+2.20)

광주·전남 5월 주식거래량·대금 감소

전달보다 2억6000만주 ↓

미국이 연내 금리인상을 구체화하고 원-엔 환율 하락에 대한 부담 등으로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한 가운데 해외 여건 불안을 우려한 주식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주식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동반 감소했다.

2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5월 중 주식거래량은 4억64만주로 전달(6억6094만주)보다 2억6031만주(39.38%) 감소했다. 거래대금도 4조9100억원에서 3조3042억원으로 1조6058억원(32.70%) 줄었다.

국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한 비중도 거래량은 2.35%(4월 2.50%), 거래대금은 1.76%(4월 1.94%)로 동반 감소했다.

거래량 상위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미래산업, 쌍방울, 슈넬생명화학, 우리종금, SK증권, 코스닥은 씨씨에스, 스틸앤리소시스, 바론손, 서희건설, 위노바, 국제디와이 순이었다.

거래대금은 코스피의 경우 제일모직, 삼성물산, 아모레퍼시픽, 삼성제약, 대우증권, 코스닥은 내츨엔도텍, 셀트리온, 다음카카오, 코리아나, 젤팩스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거래소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연초 주가 상승 기조 지속에 따른 부담감으로 거래가 준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줄고 있고, 투자자들이 신중한 거래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등교사 하계 경제교육 한은, 내달 27일~3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부는 내달 27일부터 31일까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강당에서 무박 5일 일정으로 '중등학교 교사 하계 경제교육(직무연수)'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광주·전남지역 중·고등학교 교사 4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금융·경제 관련 주요 이슈 강의, 경제교육 실습 및 토론, 교양강좌 등이 진행된다.

참가비(연수비)는 무료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교사는 오는 12일까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참가신청서를 작성, 이메일(gwangju@bok.or.kr) 또는 팩스(062-382-8164)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601-111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코스피 급락

코스피가 2일 중동호흡기후군(메르스) 확산과 엔화 약세 심화 등 악재가 겹치며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달보다 23.73포인트(1.13%) 내린 2078.64로 마감했다. 증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08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처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

연환뉴스

창업기업 기술개발 추가 지원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2일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사업계획서와 제명서류를 구비해 오는 15일까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문의(062-360-9152).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한전KDN, 1152억 원 태양광발전사업 수주

日立 주주와 약정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공기업인 한전KDN이 2일 일본 히타치계 히타치에 총 54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운영하는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한전KDN은 이날 서울 역삼동 신한아트홀에서 발주회사인 히타치 주주 태양광

발전합동회사와 사업 약정서에 서명했다.

한전KDN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해 20년 동안 발전소를 관리·운영하면서 생산하는 전력을 도쿄전력에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매출액은 발전소 건설비 74억5000만원, 20년간의 발전소 관리·운영 수익 53억5000만원 등 총 128억엔(1152억원)으로 추산된다. 한전KDN이 발전소 건

설, 설계·공사 관리감독, 사물인터넷(IoT) 기반 관제시스템 공급을 맡고, 일본 에너지프러덕트가 발전소 부지제공, 계통 접속, 토목·전기공사를 담당한다.

한전KDN은 2013년 일본 태양광발전 사업에 뛰어들어 타가와 태양광 발전소와 이와사키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기아차 '2016년형 카렌스' 출시

광주공장서 생산

첫 7단 DCT 탑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카렌스의 2016년형 모델이 2일 출시됐다.

새 모델은 연비 향상과 더불어 고객 선호 사양이 대폭 강화됐다. '2016년형 카렌스' 1.7 디젤 모델에는 기아차 국내 판매 모델 가운데 처음으로 7단 듀얼클러치변속기(DCT)가 탑재됐다.

이에 따라 복합연비도 종전의 13.2km/ℓ에서 14.9km/ℓ로 높아졌으며 유로 6 환경 기준도 충족했다. 세부 모델(트림)도 기존의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했으며 차량 공회전 제한시스템

(ISG)을 디젤 전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ISG 시스템을 장착하면 복합연비는 15.7km/ℓ로 향상된다. 2.0 LPI 모델에는 버튼시동 스마트키와 17인치 알로이 휠 등 고객이 선호하는 사양을 기본 적용한 '트렌디' 트림을 신설했다.

가격은 자동변속기 기준 1.7 디젤 모델이 2265만~2436만원이며 2.0 LPI 모델이 1995만~2425만원이다.

카렌스는 1999년 1세대 모델 출시 후 국내 소형 미니밴 시장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현재 시판 중인 3세대 모델은 넓은 실내 및 적재 공간 등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MASCOTTE 3x better

유럽시장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마스코트 제품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전국대표번호 | 1899-9128

- 서울총판 | 010-2324-9523
- 경기총판 | 010-7533-5683
- 충청총판 | 010-8786-5904
- 전북총판 | 010-9087-4859
- 전남총판 | 010-9087-4859
- 경남총판 | 010-3853-5460
- 경북총판 - 모리중 | 010-5792-8872
- 제주총판 | 010-2324-9523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 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성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태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부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술신 여성' 희망 31-58세	여성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교사 35-64세 '무지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10 6층

02) 521-4405

호남 지사 (063) 275-7766